

일본 보험업계의 친환경 대책 및 보험상품 동향

I 검토 배경

- 최근 글로벌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탈탄소,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, 일본 보험업계도 이에 발맞추어 탈탄소 대책 수립에 나서며 글로벌 트렌드에 동참하고 있음
 - 2015년 파리협정 이후, 글로벌 보험사를 중심으로 석탄 관련 사업의 보험 인수 및 투자 중단 등 탈석탄 움직임이 본격화*
 - * (보험인수) 35개 보험사가 석탄 관련 사업의 위험 인수를 제한·중단 (2021년 말 기준)
(자산운용) 65개 보험사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발표 (2020년 말 기준)
 - 일본 대형 손보 3사도 그룹사 차원의 탈탄소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와 석탄기업¹⁾에 대한 신규 보험 인수 및 투자를 전면 중단한다는 ‘탈석탄’을 선언함*
 - * 손보재팬, 일본 국내(2020년 12월 이후) 및 해외(2021년 4월 이후) 석탄화력발전 신규 보험 인수 전면 중단 / 동경해상, 2020년 10월 이후 국내외 석탄화력 보험 인수 중단 등
- 일본 보험사들의 탈석탄 대책은 보험 인수와 자산 운용 외에, 신상품 개발, 관련 담보 보험료 할인, 컨설팅 제공 등 보험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
 - 이하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절감 촉진 등의 일환으로 개발된 보험 상품·서비스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함

1) 통상 석탄화력발전이나 탄광 개발 등 프로젝트 단위로 신규 보험 인수나 투자를 중단하는 데 반해, 손보재팬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하겠다는 방침. 대상은 기업 수입의 30% 이상을 석탄화력 탄광사업, 오일샌드 채굴을 통해 얻는 기업, 사용 에너지 중 석탄발전 에너지의 비중이 30%가 넘는 기업

II 주요 내용

1. 탄소 중립 서포트 특약²⁾

- (개요) 일본 대형 손보사 미쓰이스미토모는 기업용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피해건물의 복구 과정에서 CO2 배출량 감축 설비를 신규 설치에 드는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탄소 중립 서포트 특약^{*}을 출시

* 정식 명칭: 탈탄소화 대책비용 보상특약

- (배경)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CO2 배출량 감축에 도움되는 새로운 설비/기술도 개발되고 있음
 - 이러한 기조를 감안하면 향후 화재나 풍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/설비를 복구할 때, CO2 배출량 감축에 도움되는 설비로 교체하는 기업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- 기존 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인 공사나 설비수리 등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해왔으나,
 - CO2 배출량 감축 설비 설치로 인한 추가적 비용도 보상하는 새로운 특약을 개발함으로써, 기업의 탈탄소화 대책을 지원

□ 특약 개요

- (적용 상품) 기업재산포괄보험
- (판매 대상)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1종 에너지 관리지정공장 또는 제2종 에너지 관리지정공장 등

2) 미쓰이스미토모 보도자료(2021.08.23.), 『기업 화재보험용 탄소 중립 서포트 특약 출시』

- 그 밖에, 계열사인 MS&AD 인터리스크 종합연구소의 CO2 배출량/감축량 간이산정서비스*를 받은 사업소 등

* 전력 및 가솔린, 경유 등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공표하는 배출 계수를 사용하여 CO2 배출량을 산정하는 서비스

- (지급 사유) 사고가 발생한 부지와 동일한 부지 내에서 실시한 탈탄소화대책에 소요된 추가비용*에 대해 ‘탈탄소화대책비용보험금’ 지급

보상 비용	보상 조건	보상 제외 비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사고가 발생한 부지 내와 동일 부지 내에서 실시한 탈탄소화 대책 (CO2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책) 비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대상에 관련된 비용 ◎ 보험사가 지정한 리스크 조사 /손해 방지 서비스 회사가 인정하는 탈탄소화 대책 비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보통보험약관 재물보상조항 및 이에 적용되는 다른 특약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◎ 보험의 대상을 손해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

* 예시) 생산설비에서 배출되는 열에너지를 재이용하기 위한 기능 추가, 옥상 복구 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, 고단열유리 및 외벽 고단열화 설비 구축, 조명/동력기기에 절전기능 추가, 바이오 에탄올을 연료로 한 자가발전설비 도입 등

- (지급액) 손해보험금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과 지급한도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탈탄소화 대책비용을 실비 보상
 - 보상비율: 10%, 30%
 - 지급한도액: 1/3/5/7/10억엔
- (보험료) 손해보상 비율, 지급한도,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하나 손해 보험금의 30% 또는 10억엔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경우, 약 1,000만엔 수준

2. 암모니아 수송 전용보험³⁾

□ (개요) 대형 손보사 손보재팬은 차세대 그린에너지이자 수소캐리어*로도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의 수송 관련 리스크를 보상하는 암모니아 수송 전용보험을 국내 최초로 출시함(2022년 4월 1일)

* 기체상태인 수소를 효율적으로 저장/운반하기 위해 변환시킨 물질

□ (배경) 일본 정부가 차세대 대체에너지로서 수소/암모니아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과 법개정을 단행하는 등 향후 수소/암모니아의 활용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관련 보험이 등장

- 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,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그린성장 전략의 1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「수소/연료 암모니아 산업」을 선정함
- 2022년 3월에는,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1만 2천개 기업에게 수소/암모니아 등을 포함한 ‘비화석 에너지’의 사용비율 목표 설정을 의무화한 ‘에너지사용합리화법’ 개정안이 통과
-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는 수소캐리어로서 뿐만 아니라 유용한 연료로서도 주목받음에 따라, 해외 대량 수입이나 국내 제조/활용을 위한 공급망 구축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
 - 2022년 1월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·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(NEDO)가 경제산업성과 함께 ‘연료·암모니아 서플라이 체인 구축’ 프로젝트 착수를 발표
- 이에 손보재팬은 암모니아 수송에 따른 각종 리스크를 보상하는 전용보험을 출시하고, 계열사(손보리스크 매니지먼트)와의 제휴를 통해 리스크 조사 서비스를 유료 제공하기로 함

3) 손보재팬 보도자료(2022.04.01.), 『암모니아 수송 전용보험 출시』

□ 암모니아 수송 전용보험 및 서비스 개요

- (보험) 목적물의 감소 및 이물질 혼입 등 암모니아 특유의 리스크를 종합 보상하며, 화물 수송량/경로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됨
- (서비스) 암모니아를 취급하는 시설 및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리스크 조사 및 경감 대책 수립 서비스를 제공하며, 비용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45만엔~

[표1] 암모니아 수송 전용보험

인수종목	외항/내항화물 해상보험 및 운송보험
계약자/피보험자	상사/에너지 관련 기업
대상 화물	암모니아 (NH3)
보험료율	화물의 수송량/수송용구/수송경로 등을 고려하여 개별 설계
보상내용	보험 목적물의 감소 및 이물질 혼입 등 암모니아 특유의 리스크를 종합 보상

*출처: 손보재팬 보도자료(2022.04.01.), 『암모니아 수송 전용보험 출시』

[표2] 리스크 조사 서비스

화재/자연재해 리스크	리스크 조사, 예상 최대 손해액 산정, 리스크 경감대책 수립 및 제안
암모니아 유출 리스크	리스크 경감 대책 수립 및 제안

*출처: 손보재팬 보도자료(2022.04.01.), 『암모니아 수송 전용보험 출시』

3. 지열발전 배상책임 단체보험⁴⁾

- (개요) 일본 대형 손보사 동경해상은 2022년 5월부터 일본지열협회의 정회원기업을 대상으로,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단체보험을 도입함
 -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주변 온천 용출량 감소, 온천수 수질 및 온도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 원인조사비용 및 온천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
- (배경) 일본 정부의 2020년 탄소 중립 선언 이후 지열 발전 개발에 관한 자연공원법, 온천법, 산림법 등 관련 규제가 연이어 완화되면서 지열 발전의 도입이 가속화하고 있음
 - 한편, 지열발전은 주변 온천시설의 용출량 감소, 온천수 수질 및 온도 변화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, 온천사업자 등 관계자와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과제로, 이를 해결할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
 - 동경해상은 지난 2016년 온천사업자 대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지열발전업무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한 바 있으나, 이를 일본 지열협회 회원 대상의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확대
 - 기존 상품 대비 인수대상 및 담보 확대, 보험료 단체 할인
- 상품 개요
 - (보상내용) 지열발전소 주변 온천의 용출량 감소 또는 온천수 수질 및 온도 변화 발생 시 원인조사비용과, 온천사업자의 상실소득에 대해 지열발전사업자가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
 - (보험료) 지급한도 500만엔인 경우, 10만엔 대부분 가입 가능

4) 동경해상 보도자료(2022.04.27.), 『지열발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단체제도 도입』

4. 영업용 전기차 보험료 할인⁵⁾

- (개요) 일본 대형 손보사 손보재팬은 사업자들의 CO2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, 영업용 전기차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을 개발하여 2021년 12월 이후 적용
 - 영업용 전기차 전용의 자동차보험 특약은 일본 최초
 - (배경) 일본 정부는 「2050년 탄소 중립에 따른 그린성장전략」을 통해 “경차나 상용차 등, 전기차나 연료전지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”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발표함
 - 실제로 영업용 화물차가 배출하는 CO2량은 일본 국내 배출량의 5%를 차지*하는 등 탄소 중립 실현에 있어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은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
- * 출처: 국립환경연구소 「201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」
- 이같은 정책적 움직임에 발맞추어 손보재팬은 운송사업자들의 전기차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용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업계 최초로 제공
- 전기차 보험료 할인 특약 개요
 - 대상 계약: 10대 이상의 단체계약
 - 대상 차종: 영업용 경사륜화물, 영업용 소형화물, 영업용 보통화물 (최대 적재량 2톤 이하) 중 전기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
 - 할인율: 심사를 통해 결정됨(최대 10%)
 - 본 특약 적용기간은 3년이며, 이후에는 소형 영업용 전기차의 각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약내용을 조정할 계획

5) 손보재팬 보도자료(2022.04.27.), 『업무용 전기차 보험료 할인』

5. 플라스틱 자원 활용 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⁶⁾

- (개요) 일본 대형 손보사 미쓰이스미토모는 플라스틱 자원 활용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
 - 본 할인은 ‘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’(2022년 4월 시행)에 근거하여 신설되는 인증제도*에 근거한 것으로 일부 배상책임보험에 적용
 - * 플라스틱 제조 공정 전반(원재료, 대체소재, 구조 등)에 걸쳐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/제조한 기업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
 - 대상보험: 기업종합배상책임보험, 건설업 종합 배상책임보험, 기업포괄특별약관, 기업종합배상특약 등

6. 탈탄소 서플라인체인 중단 대응 보험⁷⁾

- (개요) 동경해상은 서플라인 체인 상의 사고 발생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CO2 배출량 감축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, 손해를 보상하는 탈탄소 서플라인체인 중단 대응 보험을 개발함(2022년 4월)
 - 탈탄소 대책을 재개하기 위한 대체연료 재조달비용과 크레딧 환금액 감소로 인한 상실이익 등을 보상함
 - * 보상 예시) 자가발전시설용 암모니아 연료 조달 시, 암모니아 수송선 사고로 인해 연료 조달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발생하는 대체 암모니아 연료조달 비용 및 사고 미발생 시 얻을 수 있었던 크레딧 매각이익을 보상

※ J 크레딧 제도: 기업/지자체가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 및 재생에너지 활용과 같은 에너지 절감 대책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‘크레딧’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로, 발행된 크레딧은 다른 기업에 매각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카본 오프셋 등에 활용할 수 있음

* 카본 오프셋(Carbon Offset):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탄소에 대해서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투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고 나무를 심는 등의 행위로 탄소를 상쇄시키는 것

6) 미쓰이스미토모 보도자료(2022.03.25.), 『플라스틱 자원 활용 기업에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』

7) 동경해상 보도자료(2022.03.22.), 『기업의 탈탄소 대책 지원하는 보험 개발』